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33대 시험운행

울산, 모하비 14대 이어 투산ix 19대 ... 현대·기아자동차도 100대 시험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울산시가 3세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투산ix 19대를 인수해 7월21일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울산시가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2011년 넘겨받아 시험운행 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2월17일 인수한 모하비 14대를 합쳐 모두 33대로 늘어났다.

투산ix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최고속도 160km에 가솔린 대비 연비는 리터당 31km이며, 1회 충전으로 최대 6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울산시는 19대 가운데 14대를 노인·가정복지 및 환경감시 기관에, 5대는 연료전지부품 기업에 배정해 차량의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차량의 운행 데이터는 울산테크노파크가 확보해 관리한다.

울산시는 2009년 10월 현대차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해 2011년 모하비와 투산ix 총 100대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서울과 수도권, 울산지역에서 시험운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7/21>